

48번째, 농기구이야기

짐을 실어 나르는 ‘달구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2.3.14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운반도구

짐을 실어 나르는 운반도구에는 수레, 달구지 등이 있다. 수레는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든 기구라는 뜻으로 수레의 발달로 사람이나 짐을 옮기는 운반수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레는 사람이 이끌기도 하고 동물의 힘을 이용하며, 때에 따라 명칭도 달리 쓰인다. 수레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몸체에 2개나 4개의 바퀴를 달고 손잡이를 붙인 것이 기본 형태이다.

수레는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시대에 따라 달리 불려졌다.

우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손수레가 있으며, 소가 끄는 경우는 달구지, 말이 끄는 경우는 마차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나 신라의 수레모양토기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예로부터 사용된 대부분의 수레는 ‘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달구지’라는 명칭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소가 끌고 있는 수레의 모습을 많이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삼국사기》 북부여(北扶餘)조에 다음과 같이 북부여의 시조인 해모수가 타고 온 ‘오룡거(五龍車)’라는 수레가 있다고 전해진다.

고기(古記) 이르길, 전한(前漢) 선제(宣帝) 신작(神爵) 3년 임술(壬戌) 4월 8일에 천제(天帝)가 흘승골성(訖升骨城, 현 오녀산성)에 내려왔다.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도읍을 정하여 왕이라 일컫고 국호를 북부여(北扶餘)라고 하고,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解慕漱)라고 했다.¹⁾

이 외에도 고구려에서는 수레를 충차(衝車)²⁾, 운제(雲梯)³⁾, 포차(抛車)⁴⁾ 등 다양한 응용무기로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눌지왕 22년(438년) 평민들에게 소가 끄는 수레 사용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달구지가 평민들의 운송수단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⁵⁾ 또한 경주 황성동 석실분에서는 수레바퀴, 토용, 소, 말 등이 같이 출토되어 위의 기록과 같이 ‘소가 수레를 끌었다’는 내용을 뒷받침 한다

1) 『삼국유사』 권 제1 / 기이 제 1 / 북부여조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2) 예전에, 적진이나 성(城)을 공격할 때 쓰던 수레의 하나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3) 예전에, 성을 공격할 때 썼던 높은 사다리로 높이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4) 성을 둘로 공격할 때 사용하던 수레로 나무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무거운 돌 등을 성 안으로 던져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동국통감 권 4 삼국기(東國通鑑 卷4 三國紀) 신라 눌지왕 22년 여름, “신라에서는 백성에게 우거(牛車)의 법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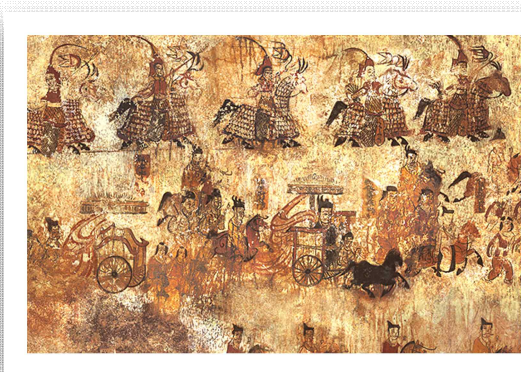


사진 1. 평안 덕흥리고분 벽화 행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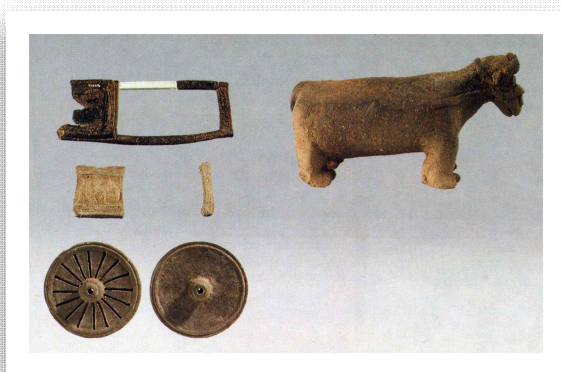


사진 2. 경주 황성동 석실분 출토

현재와 같이 달구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이며, 최세진의 《번역박통사》에서 ‘달구지’⁶⁾로 등장한다. 이 외에도 왕조실록 등 문헌기록에 많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그 중 특히, 정조 때의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⁷⁾에는 대차(大車)와 평차(平車)라는 이름의 수레가 등장하는데 두 바퀴 달린 달구지와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레는 일상용이라기보다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상용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던 달구지와는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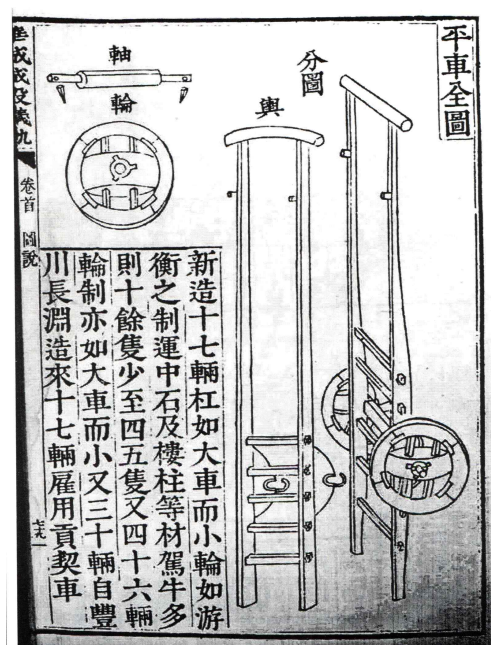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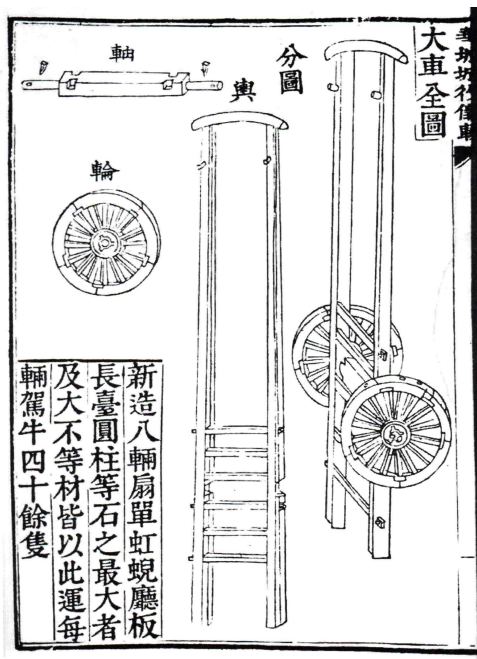


그림 1. 《화성성역의궤》中 대차(左)와 평차(右)

6) 1517 이전 간행 추정. 조선 중종 때 최세진이 중국어 학습서인 한문본 《박통사》에 한글로 중국어의 정음과 속음을 달고 번역한 책이다.

7) 김종수(金鍾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2. 달구지의 형태 및 용도

달구지는 바퀴는 두 개인 것과 네 개인 것이 있으며 바퀴의 개수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두 개인 것은 단순히 수레에 채를 연결한 모양으로 서 있을 때도 소가 설 수 없어 쉽게 지치는 단점이 있으나 산악지대나 울퉁불퉁한 곳에서 사용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반면에 네 개인 것은 장틀 앞쪽에 채대를 따로 연결하여 상하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두 개의 바퀴는 장틀에 붙어 있고 두 개는 별도의 축과 연결되어 있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달구지는 한 번에 500~1,000kg의 짐을 나를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바퀴에 타이어를 부착 하는 등 편리해지고 형태가 다양해졌으나, 점차 경운기와 트랙터와 같은 동력기계가 보급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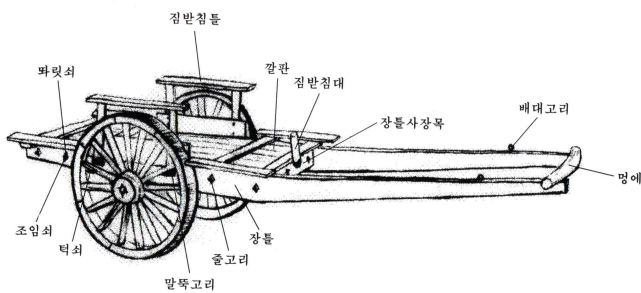


사진 3. 바퀴가 두 개 달린 달구지와 부분명칭(上: 전남농업박물관, 下: 국립중앙과학관 학술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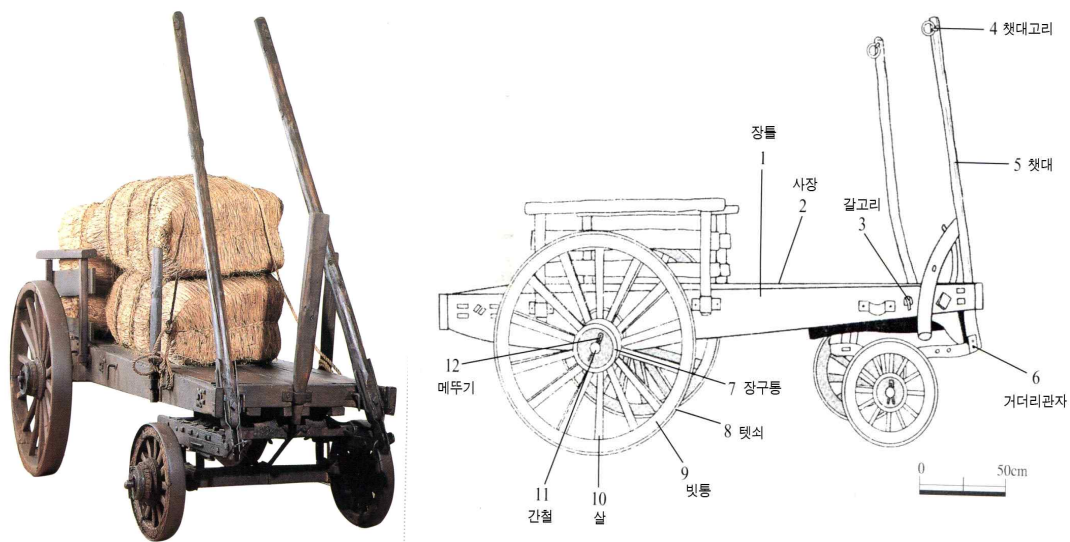


사진 4. 바퀴가 네 개 달린 달구지와 부분명칭(上 : 농협농업박물관, 下: 김광언)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金鍾秀, 『華城城役儀軌』

— 然, 『三國遺事』

崔世珍, 『翻譯朴通事』

徐居正, 『東國通鑑』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동광출판사

국립중앙과학관, 2000, 「겨레과학기술조사연구(VIII)-수레」, 『국립중앙과학관 학술총서 27』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겨레와 함께 한 쌀』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рудо감』